

IMF체제하에서의 양돈산업 전략

본고는 지난 9월 11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주)선진 사료가 주최한 "선진 전국 양돈세미나"에서 정P&C연구소 정영철 박사가 발표한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편집자주>

정영철 박사
(정P&C 연구소)

1. 세계의 양돈산업 동향

3대 돈육 공급지역

이 미 수입개방이 되어 버린 한국의 돈육시장은 세계 각국의 돈육시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의 돈육시장의 동향을 무시하고 국내 양돈산업의 생존전략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돈육은 육류중 세계에서 가장 선호되고 많이 소비되는 축산물이다. 간단히 이야기해서 전세계의 연간 도축두수는 약 10억두이고 그 중 중국이 약 6억두, 유럽 EU회원국 15개국이 2억두, 미국이 1억두를 차지하고 있어서 커다란 세계의 3대 돈육공급원을 형성하고 있다. 나머지 국가에서 연간 총 1억~1억5천만두의 돼지를 생산도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돈육시장에 영향을 주는 돈육의 수출 총량은 세계 전체 생산량의 약 3%에 불과한 237만톤(지육기준)이며 돈육수입량은 전체 생산량의 2.5% 수준인 200만톤(지육기준)이다.

한국에 위협이 되고 있는 주요 돈육 수출국을 보면, EU 15개국이 연간 약 80만톤으로 전세계 수출량의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이 연간 약 45만톤으로 전세계 수출량의 약 20%를, 또한 캐나다가 연간 약 40만톤으로 17%를 차지하고 있어서 수출량으로는 이 지역들이 전체의 71%를 차지하고 있어서 세계의 3대 돈육수출 공급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단위로 수입량을 제외한 순수한 수출량으로는 97년 실적 기준으로

덴마크가 44만7천톤, 캐나다가 34만5천톤, 미국이 20만2천톤으로 돈육수출 3대국가이다.

주요 돈육수입국

반면에 주요 돈육 수입국가를 보면 일본이 연간 74만톤으로 전세계 돈육수입량의 37%를 차지하고 있어서 단연 선두를 달리고 있다. EU지역을 제외하고는 두번째로 많은 돈육을 수입하는 국가는 최근 돈육 수입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러시아로서 연간 50만톤 전후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최근의 루블화 평가절하 사태, 경제위기 등으로 정상적으로 돈육을 수입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세계의 모든 돈육 수출국은 일본시장을 목표로 치열한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움직이고 있다. 일본의 양돈사육규모는 전년비 1~2%씩 늘어나고 있으나 이것은 국내 소비증가 비율과 상쇄되고 있어서 여전히 전체소비량의 35~40%를 수입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 계속되고 있다.

향후전망

한편, 미국과 유럽은 전형적인 3~4년 주기의 피크사이클의 불황주기에 동시에 접어들고 있어서 향후 2년간 6~8%씩 돈육 생산량이 증가할 전망이다. 더구나 아시아에서 시작된 세계의 불경기가 향후 2년간 더욱 돈육소비의 지속적인 위축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최소한 1999년과 2000년의 향후 2년간은 공급과 수요면에서

돈가가 사상 최악의 불황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2. 한국의 돈육수급 현황

97년 한국의 양돈산업은 71만 6,300톤(정육기준)의 돈육을 생산하여 51,600톤을 수출하고 63,000톤의 돈육을 수입하여 727,700톤을 소비하였다. 한국의 양돈산업 특징은 물량면에서 수출하는 만큼 수입하는 형태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민들이 선호하는 삼겹살을 대량으로 수입하고 비선호 부위이면서 일본에서 타부위에 비해 고가로 팔리는 등심과 안심, 후지를 대량으로 수출하는 양극화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3. IMF사태와 한국의 양돈산업

고환율, 고이자, 고실업율, 고물가, 저경제성장인 4고 1저의 IMF 사태 영향은 타산업과 마찬가지로 양돈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가장 큰 영향은 고환율로 인한 사료비의 폭등으로서 생산비의 가파른 상승과 극심한 불황으로 돈육소비의 위축을 초래하여 경영악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현 상황은 양돈산업 자체가 과연 수익성이 있는 사업인지 판단해야 하는 원점에서부터 양돈경영을 재점검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특히 98년도 10월부터 본격적인 돈가의 하락이 시작되어 최소한 내년 3월까지의 생산비 이하의 돈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4. 양돈산업의 생존전략

양돈사업을 위한 투자의 타당성 검토

최근의 사료단가 인하 이후 본 연구소 추정 비육돈 생산비는 전업농가는 생돈kg당 1,630원, 모돈 400두 이상 기업양돈농가의 경우 1,730원이



▲현 상황은 양돈산업 자체가 과연 수익성이 있는 사업인지 판단해야 하는 원점에서부터 양돈경영을 재점검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특히 98년도 10월부터 본격적인 돈가의 하락이 시작되어 최소한 내년 3월까지의 생산비 이하의 돈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 IMF이전보다 생산비가 전업농가와 기업농가 모두 각각 20%, 15% 씩 상승한 것이다. 반면에 시세는 저돈가를 형성하고 있어서 투자수익성은 지극히 낮아지고 있다. 수익성은 돈가시세와 생산성의 두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데 돈가시세가 약 60%, 생산성이 40% 영향을 주고 있다. 돈가의 변화가 적어지면 수익성에 생산성이 미치는 영향도가 점차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소 분석 결과 최소한 금년도 돈가수준이 지속된다면 양돈사업을 위한 투자는 연리 5%를 넘는 자금은 전연 투자 수익성이 없다. 또한 생산성이 순농장의 경우 모돈두당 출하두수가 20두, 비육돈 농장의 경우 22두 이상이 되어야 생존 가능하다고 판단 된다. 향후 2년간 양돈경영은 최소의 인원, 최소의 경비, 최고의 기술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 과학적인 경영진단을 통한 자기점검과 벤치마킹, 최우수 종돈의 사용을 등한시 한다면 결국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시련의 시기가 될 것이다.

저가의 수입쇠고기와 비축쇠고기에 대한 대응 전략
연도별 국내 육류소비량을 분석하여 보면 94

만일 미국과의 진정한 벤치마킹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불가피하다. 양돈장 생산성 및 경영분석 소프트웨어의 사용은 마치 컴퓨터의 윈도우 시스템을 구입하는 것과 동일하다.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윈도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쓰겠다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주목하여야 한다. 세계공용의 양돈전산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서 생산성 형질 정의를 선두주자와 비교하는 벤치마킹과 개선방안을 실행하는 양돈경영이 수입개방에 대처하는 경쟁력을 갖추는 길이다.

로 돼지고기의 점유율을 빼앗고 있는 것이다. 돼지고기는 93년의 56% 점유율에서 97년은 52%대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의 쇠고기 저가세일은 돈육소비 위축을 한층 심화시키고 있다.

미국 수입쇠고기는 600g에 2,970원, 쇠갈비는 4,560원으로, 비축 한우고기는 30~40%씩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에 돼지고기는 브랜드 삼겹살이 600g에 5,500~6,000원의 고가로 판매되고 있다. 돼지고기의 소비자가격이 너무 높은 것이다. 그 주요원인은 우리나라 소비자들 80%의 구매의향이 한마리에서 30%만 생산되는 삼겹살과 목살만 찾기 때문이다. 나머지 부위는 팔리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부위의 생산비까지 삼겹살 가격에 얹히기 때문인 것이다. 소비자의 편중된 부위별 소비형태가 부위별 돈육 수요의 왜곡화를 심화시키고 중국적으로는 삼겹살 돈육 수입의 확대와 돈육소비 감퇴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교차탄성치는 대단히 높아서 쇠고기값이 10% 낮아지면 돈육소비는 3.3% 낮아지는 것으로 연구된 바 있다.

년부터 값싼 수입 쇠고기가 대량으로 공급되면서부터 쇠고기 소비가 점차 늘고 있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의 연도별 시장점유율을 보면 닭고기는 전체 육류소비량의 22%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쇠고기는 93년의 25%로부터 97년의 30%로 매년 약 1%씩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

30% 할인된 쇠고기 가격은 돈육소비량을 약 10%나 감소시키는 것이다. 자연히 소비량 10% 감소는 돈가를 10% 이상 하락시킨다. 저가 쇠고기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중저가의 브랜드육 개발이 절실하다. 중소규모 농가를 규합하거나, 몇 개의 양돈단지를 묶어서 지역별로 품질을 보장하는 중저가의 브랜드돈육으로 저가 쇠고기에 대응하는 판매전략을 전국적으로 전개하여야 돈육시장의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다. 지역의 조합이나 사료메이커의 역할이 기대된다.

세계의 양돈생산성 및 경영성적과의 벤치마킹

국내시장이 개방되었으므로 경쟁의 상대는 국내양돈장이 아니라 돈육수출국 양돈장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여야 한다. 자기의 양돈장과 미국과 일본, 덴마크 양돈장과의 생산성적 비교는 먼저 측정잣대를 통일하여야 한다. 마치 언어를 통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는 심지어 국내 각 농장끼리의 잣대마저도 조금씩 다르다. 동일한 복당 산자수라도 총산자수, 생산자수, 포유산자수 모두가 서로 다른 형질인 것이다. 미국 등 외국의 기준에 맞추든지 미국 등 외국의 자료를 우리 기준에 맞추어야 정확한 벤치마킹이 가능한 것이다.

실제로 우리의 포유개시두수와 미국의 생산자수와의 차이는 복당 약 0.2두 차이가 나고 모돈회전율은 미국은 후보돈 전입시 상시사육모돈 두수로 간주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돈회전율과는 약 0.15회전 차이가 난다. 또한 양돈경영성적의 분석 기술과 생산성 향상대책 수립방법이 우리와 다른 것이 사실이다. 만일 미국과의 진정한 벤치마킹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불가피하다. 양돈장 생산성 및 경영분석 소프트웨어의 사용은 마치 컴퓨터의 윈도우 시스템을 구입하는 것과 동일하다.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윈도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쓰겠다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주목하여야 한다. 세계공용의 양돈전산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서 생



▲양돈생산자 단체와 육가공업계 단체는 상호 합의하여 각 업계가 전문기관의 연구에 따른 통일된 구매제도를 동시에 실시하여 현재의 도축두수중 수출돈 생산비율 30%를 최소한 70%로 늘이지 않으면 안된다.

산성 형질 정의를 선두주자와 비교하는 벤치마킹과 개선방안을 실행하는 양돈경영이 수입개방에 대처하는 경쟁력을 갖추는 길이다.

나머지 부위 돈육의 머천다이징 방안

머천다이징(merchandising)이란 제품의 상품성을 높여서 구매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한국의 양돈산업 중 가장 뒤진 분야 중의 하나가 돈육의 머천다이징화라고 할 것이다. 최근까지 돈육 유통이 돼지 한마리 개념으로 정육점에서 돼지고기 한근 요구하면 아무 부위나 판매되었다. 그러나 돈육 유통이 지육의 등급제와 주요 5~6개 부위 부분육 유통으로 시장이 바뀌었다. 우리의 소비자가 삼겹살과 목살만 찾기 때문에 등심과 안심을 수출하기는 용이하지만 전지와 갈비, 후지 등은 팔리지 않아서 재고가 산처럼 쌓인다. 정육점에서는 도매시장에서 돼지를 더 구입하고 싶지만 팔리지 않는 나머지 부위 때문에 사울 수가 없다. 생산품목과 소비품목이 일치하지 않아 소비구조가 왜곡되고 있는 것이다. 돈육의 전부위 판매 촉진을 위한 머천다이징이 제대로 되어 오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다.

돈육의 유통구조는 그동안의 꾸준한 정책의 구사와 업계의 노력으로 생돈에서 지육으로, 다시 부분육 유통으로 유통시장이 개선되고 변화 되어 왔으나 소비자는 옛날 그대로, 돼지고기라면 삼겹살과 목살을 구워먹는 방법 밖에는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정육점과 슈퍼 등 소매점도 어느 부위육이 어떤 요리로 쓰이는지 모르기 때문에 적절한 커팅 방법을 모르고 있으므로 소비자에게 보여줄 수도 알릴 수도 없는 것이다. 양돈업계, 육가공업계 공동으로 돈육의 1차 소비자인 정육점 주인과 2차 소비자인 가정주부를 교육시키는 돼지고기 요리종류에 따른 부위육의 용도와 그 요리를 위한 커팅 방법,

전시 방법 등을 명시한 안내책자 발행과 매체를 통한 홍보가 절실하다. 돈육소비 경로의 막힌 곳을 터 주는 돈육소비확대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양돈산업과 육가공업이 합의한 전국 통일 구매시스템 정립

국가적 경쟁력 향상을 위한 비육돈거래 방법의 개선이 시급하다. 97년도 도매시장에서 도체 등급에 의한 비육돈의 거래는 약 24%에 불과하다. 나머지 돼지는 대부분이 생돈체중에서 서울도매시장의 평균 단가를 적용하여 거래가 되고 있다. 생돈거래로 등지방이 두꺼운 돼지, 비거세돈, 과도히 큰 체중의 비육돈, 조기 성장으로 인한 저질 돈육의 생산, 출하직전까지의 포식으로 인한 사료의 낭비 등으로 연간 약 500억원의 업계 손실을 초래함은 물론 저질 돈육 수출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양돈생산자 단체와 육가공업계 단체는 상호 합의하여 각 업계가 전문기관의 연구에 따른 통일된 구매제도를 동시에 실시하여 현재의 도축두수중 수출돈 생산비율 30%를 최소한 70%로 늘이지 않으면 안된다. 산업분야와 정부의 조속한 조치가 요망된다. **養豚**